

[이건희 별세]

건희야, 내 친구라서 행복했다

중학교 동창이 병상의 이건희 회장에게 쓴 편지

故 이건희 회장 서울시대 부중 동창인 조태훈 건국대 명예교수가 2018년 1월 병상의 친구에게 띄운 글을 다시 게재합니다.

by **조태훈** 건국대 경영대 명예교수

나는 1955년 중학교에 입학해 지금은 70대 중반인 노인이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3년에 태어나 어릴 때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출범하였으나 그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기억은 없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50년 동족상잔의 6·25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군국주의 일본의 수탈적 식민지배로 인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전근대적 농경국가가 UN군과 중공군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밀고 당기는 과정에 전 국토가 축대밭이 된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다녀야만 했다. 북한 인민군이나 중공군에 점령당하지 않았던 낙동강 이남, 즉 부산 인근의 한 줌의 땅에 살았던 나 같은 애들만이 초등학교를 중단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다. 그나마 이 지방 애들도 학교를 군인 부대에 내주고 산지사방에 흩어져 동사무소나 가건물에서 공부를 했다. 대부분의 내 또래 아이들은 피란길에 올라 목숨을 잃거나 부모형제와 생이별을 하지 않았다면 천행(天幸)이요 축복으로 여겼던 때였다. 같은 학년에 나이가 5살이나 더 먹은 아이들이 수두룩했다.

1961년 대학생이 되어서는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항쟁을 주도했고 독재타파와 민주화를 견인한 주력이었다. 졸업 후에는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고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산업국가로 발전시키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제 우리 세대는 OECD 멤버국가로



최첨단 디지털 문화를 일상화된 삶의 일부분으로 향유하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한평생에 이렇게 많은 패러다임 전환적 시대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세대는 인류 역사상 거의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나는 공업지대로 개발되기 전의 울산 병영에서 태어난 촌놈이었으나 일찌감치 서울로 유학을 왔다. 나는 당시 특차 학교로 '천하 부중'이라고 명성이 높았던 서울시대 부속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틈만 나면 일본 만화책 보던 소년

그러던 2학년 초 어느날 한 아이가 전학을 왔다.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바다 건너 바로 왔다고 했다. 얼굴이 뽀얗고 유난히 눈이 크고 동그란 아이였다. 그 아이는 우리 반으로 와 바로 내 뒤에 앉았다.

그 아이는 나와 같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쉬는 시간이나 틈만 나면 일본 만화책을 보는 점이 특이하였다. 삼성 이병철씨의 아들이라고 했다. 당시 우리는 삼성

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던 시절이었다. 단지 '이병철'이란 이름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로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였다. 당시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도시락 반찬이 좋으면 인기가 높았던 시절이었다. 도시락을 못 싸 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는 시절이었다. 멀찌조림, 계란말이, 소고기 장조림 반찬은 귀했다. 전학 온 아이는 반찬이 좋았고 우리와는 반찬을 매개로 쉽게 어울리게 되었다. 건희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장난기를 주체할 수 없는 개구쟁이일 수밖에 없었다. 건희는 특히 돌이 서서 겨루다가 한 팔로 상대방 목을 졸라 누르면서 항복을 받아내는 놀이를 좋아했다. 나와는 호적수였다. 서울시대부중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서울대 사범대학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장충동 건희 집에 자주 놀러도 갔다. 처음 갔을 때 희한한 것을 보았다. 2층에 있는 건희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 1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 한가운데 초록색 웅단으로 윗부분 전체를 감싼 아주 큰 탁자 같은 게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도대체 저것이 무엇

을 하는 책상이냐고 물었다. 아버님이 치시는 당구대라고 했다. 당구대로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건희 방에는 일제 장난감들이 많았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진기한 명품에 흔히 빠져 땅거미가 질어져 와도 집에 갈 생각조차 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럴 때면 건희는 "그거 집에 가지고 가서 놀다가 학교로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다. 가끔 귀하다 귀한 일제 연필과 지우개를 주기도 했다.

서울시대부속고등학교 시절에는 난생처음 축음을 듣게 해준 친구가 건희였다. 마할리아 잭슨(Mahalia Jackson)의 LP판을 틀어주면서 설명도 해줬다. 백인의 독무대였던 카네기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최초의 흑인 여가수였는데,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에서 노래로 차별의 벽을 뚫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했다. 인종, 신분, 국경을 초월하게 하는 대단한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했다.

그 당시 종로의 화신백화점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밀려드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

▲ 서울시대부고 2학년생들이 1959년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침성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 끝이 이 건희 학생이다. photo 조태훈

건희가 일본 와세다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우리는 십수년간 연락이 두절된 채 완전히 다른 인생의 궤적을 살았다. 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ROTC 3기로 임관되어, 1년은 최전방 백암산 포병 관측장교로, 1년은 맹호1진으로 베트남 전장에 투입되었다. 제대하자마자 유학길에 올라 10년 동안 벨기에에서 공부하였다. 나는 귀국 직후 중앙일보 이사로 있던 건희와 재회했다. 만나자마자 건희가 말했다. "니가 우리 동창 중에 제대로 공부한 박사 1호 아이가. 나도와지지 다른 데 갈 생각 하지 말거라." 건희는 바로 부회장이 되었고 후계자가 되었다. 나는 귀국한 지 2주도 안 돼 삼성 비서실 팀장으로 출근하게 되었고, 7년 반을 삼성에 있었다.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었다. 얘기는 주로 건희가 하였다. 느릿느릿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씩 웃어 얘기했다. 나는 특히 건희의 눈과 눈

빛을 좋아했다. 맑고 형형한 광채를 빛내는 눈을 바라보며 잠깐잠깐 추임새만 넣어주면 거미줄이 풀려 나오듯 얘기가 술술 이어졌다.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귀국해 가장 힘들었던 것은 회장인 아버님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일이었다고 했다. 체질화된 올빼미가 미칠 지경이었다고 했다.

"우리 민족은 전자업종이 제일 잘 맞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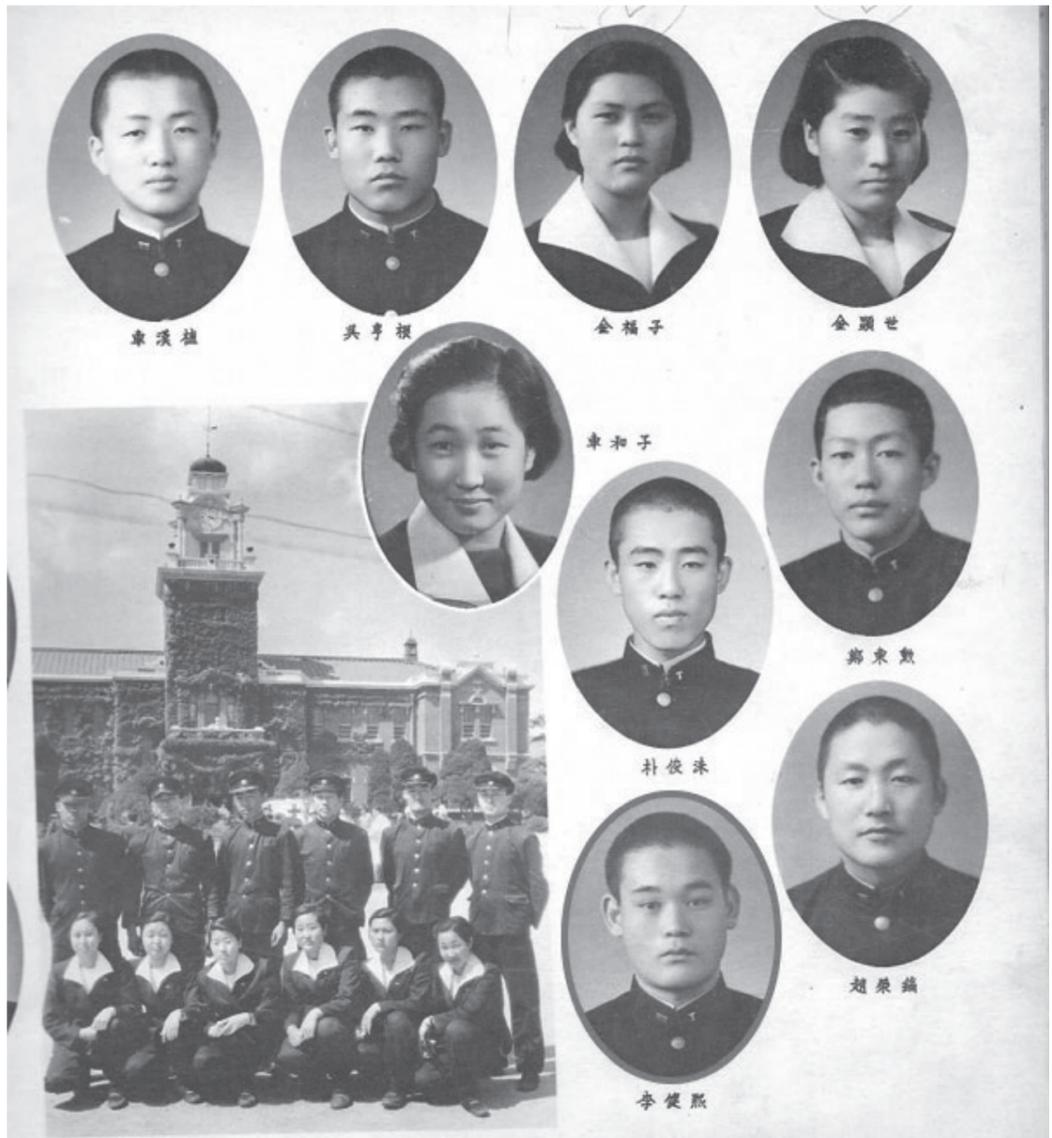
미국 유학 중 '한비(韓肥·한국비료) 사건이 터져 빨리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아 한밤중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일본 하네다공항에 내렸는데, 트랩 아래에 미쓰이(三井)물산에서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있었다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나왔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라고 하면서 기업의 정보 수집력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리나 판매는 가만히 놔둬도 잘 굴러가는 것이니까, 최고경영자는 범무·홍보·정보와 같은 기능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1977~1978년에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콘서트 건물 3동에 불과하였다. 1위 전자업체는 선대 호암 이병철 회장의 사돈 기업인 금성사(Gold Star·LG전자 옛이름)였다. 국내시장에서 난공불락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을 때였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삼성은 생산물량 100%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전자업종에 특세를 비집고 진출한 초창기였다. 그때 벌써 건희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민족성을 보면 뭘니 뭘니 해도 전자업종이 제일 잘 맞는 거야! 섬섬옥수의 손재주와 섬세성에 있어서 우리 국민을 따라올 나라는 없어."

삼성전자에 올인해야 한다는 철학과 신념이 벌써 그때부터 다져지고 있었다. 비서실에 있을 때 나의 소속사를 삼성전자로 하라고 한 것도 건희였다. 비서실 팀장으로 있던 어느 날 오후 긴급 사장단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병철 회장께서 좌우에 흥진기 중앙일보 회장과 이건희 부회장을 대동하고 회의를 주재하셨다.

(..다음호에 계속)



▲ 서울 용두동 시절의 서울시대부고 졸업앨범 속의 이건희 (사진 맨아래). photo 조태훈



▲ 서울 장충동 집에서 반려견과 함께한 중학생 이건희.